

서해안 지역을 돌아보고

노 박 래
(충남발전연구원 정책연구위원)

1. 글 쓰게된 동기

2003년 5월부터 10월사이에 공적·사적 기회를 통하여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 시·군을 거의 돌아보게 되었다.

이 구간에 위치한 대부분의 지역이 종전에는 교통상 오지라고 불리웠던 곳이 많은데 2001년 하반기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서 지자체별로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들을 수 있었고, 어떤 곳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이 기간 중 보고 느낀점을 소개하는 것이다.

2. 지역개발의 기대가 커지고 있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서부 수도권 진입에 걸리는 소요 시간이 대략 2분의 1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고속도로와 일반국도에 의존하던 교통량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지만, 편리해진 수송망으로 서해안고속도로 통과지역의 물동량이 상당 폭 늘어나고 기업입주도 갈수록 활발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인접하였으나 그동안은 접근성이 떨어졌던 충남 당진, 서산지역은 늘어나는 물동량 처리를 위하여 당진, 대산쪽에 항만시설 공사가 한창이었고, 신궁농공단지(당진송악)와 중규모 산업단지(서산대죽)가 조성중이며, 기존의 철강·화학·자동차산업 및 관련산업의 시설확장과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고, 해당 지자체 관계자나 지역주민들도 기대에 차있어 전체적으로 역동적인 모습이었다.

충남서북부는 그동안에도 수도권의 압출요인으로

기업 입주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으나 아산만 7km의 바다를 건넌 고속도로 연결은 먼저 이들 지역의 개발을 크게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중간쯤 위치한 보령(관창산업단지), 군산(군장산업단지)의 산업적 역할이 커지는 것은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멀리 목포에 있는 대불산업단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서해안 고속도로 |

3. 文化·觀光의 活性化 측면



| 태안군 안면송 |



| 함평 나비축제 |

태안반도는 해안선이 제주도보다 길어 119개소의 섬과 31개소의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다. 고려시대부터 국유림으로 보호되었다는 안면송의 수려한 소나무 숲과 맑은 물 고운 모래의 청정해안으로 일찍부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교통의 오지로 빛을 보지 못하다가 고속도로 개통 후 몇 달 뒤 개최된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의 대성공에 힘입어 연간 1,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으로 전국적인 관심과 이목을 끌게 되었다.

안면도 일대는 피서철 외에도 주말 또는 연휴에는 현 지주민보다 외지에서온 관광객이 훨씬 많음을 볼 수 있었다.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에서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까지 충남 서해안의 바다자원은 직접적인 어민 소득뿐만 아니라 휴양 관광을 위한 최고의 자원으로써 잘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지난해에 우리도가 수립한 “내포문화권사업”이 앞으로 본격 추진되게 되면 공주·부여·익산 중심의 ‘백제문화권’ 개발에 이어 서해안 지역의 훌륭한 역사 문화자원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호남 서부쪽의 김제 지평선, 함평 나비, 무안 연꽃, 나주 영산포문화축제 등이 봄부터 가을까지 교대로 열리고 부안군 변산반도 채석강, 신안군 홍도의 절경을 찾는 관광객의 내왕이 크게 늘어나면서 남도가 자랑하는 훌륭한 문화유산과 남도음식이 그 진가를 더욱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역 축제 준비와 외지 관광객을 맞이하는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쏟는 정성을 들여다 보았을 때, 이아말로 우리 충남도가 다 같이 배울만하다고 느낀 일이 있다.



4. 1차 산업의 질적 변화와 농어촌체험의 연결

서해바다에서 잡아올리는 맛 좋은 어패류 등 수산물은 수송시간이 선도를 유지하는 첩경이고, 이제는 농축산물도 유기농법과 무공해가 강조되는 즉,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게 된 만큼 이와같은 흐름에 앞서는 농업 행정을 홍성군의 오리농법, 함평군의 환경농업 등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맛을 높이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농축산물을 생산한다면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팜스테이, 체험관광을 통해서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직거래의 규모는 더욱 늘어나리라고 예상된다.

5. 통계로 비추어본 결과

지난 10월 중에 한국은행 충남본부에서 발표한 “서해안고속도로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의하면 운수, 창고, 통신 업종은 전국 평균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고 숙박 및 음식점업도 전국 증가율에 비해 2배이상 높았으며 관광객도 지난해말 기준으로 2001년도 대비 14%가 증가하는 등 충남지역 산업구조가 변하고 관광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물동량이 크게 늘어났다고 분석하였다.



| 대천해수욕장 |

앞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는 연중 이벤트를 마련하고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설의 고급화를 제시하였고 또한 개선된 물류 및 교통여건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려면 첨단제조업에 역점을 둔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싶다.